

고흥 스마트팜 신선채소 6톤 롯데백화점 첫 납품



전국 20개 매장에 1년간 80톤 납품키로 지속 유통 경로 확대·농업인 소득증대

고흥군은 고흥산 스마트팜 신선채소 6톤을 롯데백화점에 첫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 되는 신선채소는 유럽식 샐러드채소로 최근 식습관 변화로 간편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인기 품목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고흥군에서 처음으로 신선채소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전국 20

개 매장에 6톤 납품을 시작으로 향후 1년간 80톤이 납품됐다. 신선채소를 납품하게 된 유일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창업육성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신선채소 재배에 성공했지만 판로 확보가 문제였으나, 고흥군의 적극적인 판로 대책 지원으로 판로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롯데백화점에 신선채소를 공급한 대항유통 관계자는 "고흥 신선

채소는 샐러드용으로 맛, 신선도, 위생 등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판단되어 롯데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며 "고흥군과 협력하여 향후 마늘, 복숭아, 오이 등 고흥의 우수한 다른 농산물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완료된 후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스마트팜 재배 농산물의 신규 판로 확보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경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등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종속구간 도로명 부여로 위치 찾기 쉬워져

순천시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승주읍 신전1길 외 15개 종속구간에 22개의 도로명을 새로 부여해 건물 위치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속구간이란 주도로에 접한 지선도로로, 대부분 막다른 구간이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은 채, 주변 도로명과 본선에 가지번호(부번)를 붙여 주소를 표시한다.

종속구간이 생겨날수록 골목길에 주된 도로명이 없어 정확한 건물의 위치를 찾기 힘들거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등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승주읍, 주암면, 외서면, 황전면, 월등면 등의 16개 종속구간에 신규 도로명 부여를 추진했다.

새로운 도로명 부여를 위해 현장확인회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정서 등 지리적 특성과 위치를 감안하여 적합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일괄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나용준 순천시토지정보 과장은 "기존 종속구간의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고, 주소 찾기가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종속구간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매실 따기' 농촌일손돕기 나서

광양시는 매실 수확철인 5월 24일부터 1개월간 고령농가, 부녀농가, 장기업원 농가 등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등 농업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농작업 기계화가 경제정리 기반이 조성된 들녘 위주로 이뤄져 논벼는 98.6%인데 비해 밭작물은 61.9%, 과수는 기계화율이 더 낮아 많은 작업을 일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매실 수확기에 일손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농가, 부녀농가, 장기업원 농가 등 일손 취약농가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사무소, 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앞선장구'를 개설해 지역 기관, 단체, 기업과 자원봉사자의 일손돕기 참여를 독려하고, 일손돕기 자원봉사자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를 연결해 일손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광양농협과 다압농협에 '농촌고용인력센터'를 설치해 연중 3,400명의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삼남석유화학, 지역인재채용 '여수시민가점제' 동참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인구 증가 적극 협력 약속



삼남석유화학(주)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여수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8곳으로 늘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삼남석유화학(주) 인력채용 여수시민가점제 적용 협약식'이 열렸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오식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남석유화학은 신규 인력채용부터 여수시민가점제를 적용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수공장 임직원들에게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여수시는 많은 산단기업이 가점제 시행에 참여하도록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

은 여건을 만들고, 가점제 실시 기업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오식 공장장은 "삼남석유화학(주)은 여수시와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등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GS칼텍스(주), 남해화학(주), 한화솔루션(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미시이화(주), 금호엔비화학(주), 금호폴리켄(주)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채용인원 563명 중 58%에 달하는 325명을 여수시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풍수해·산사태 재난예방대응 총력

태풍·호우 피해예방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김정오 소장)는 여름철 장마기를 대비하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

해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유지 등 장마철 풍수해·산사태 자연재난 상황에 맞게 단계별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9개 관할 시·군의 국유림 내 산사태취약지역 126개소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다. 또 우기전인 6월 말까지 사망사건을 완료해 산사태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관할 시·군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보성군, 고흥군 등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와 태풍의 한반도 내습 등으로 산사태 예



측이 어려워지는 만큼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평상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